

### ■ 체신부

#### PC통신 전화요금 인하

PC통신에 접속되는 시내전화 요금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현대 3분당 30원에서 21원으로 30% 인하된다.

8일 체신부는 정보통신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통신의 하이텔서비스 및 데이콤의 천리안서비스 등 공중데이터통신망(014XY)에 접속되는 시내 전화요금을 일률적으로 30%인하하기로 했다.

체신부가 이같이 PC통신의 시내전화이용 요금을 대폭 낮추기로 한 것은 최근들어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PC통신 이용층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이들의 통신이용료를 절감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통신 이용자들은 연간 1백억원 규모의 통신 이용료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체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각 정보통신사업자마다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PC통신요금체제를 개편, 전화접속료를 비롯해 서비스요금 등을 통합한 새로운 요금체제를 올 상반기중에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또한 올해안에 PC통신망의 연동운용 범위를 민간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고 통신망 통합 장치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정보통신료 회수 대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분야의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PC통신 이용자는 컴퓨터 보급이 활발히

추진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45만 가입자를 넘어섰으며 가입자당 이용시간도 월간 9시간에 달하는 등 이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부가통신사업자 93년말 현재 1백63개사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난 93년에 1백여개사가 증가한 1백63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6일 체신부가 따르면 지난 12월31일 현재 부가통신사업(VAN)을 위해 체신부에 등록한 업체는 총 1백63개사이며 이중 국제 VAN사업자는 11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92년말에 비해 1백50%나 늘어난 것으로 국내 부가가치통신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체신부는 94년에 1백40개사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최근에 등록한 업체는 포스테이타가 설립한 에이텔로 이 회사는 국제 VAN 사업도 같이한다.

#### 전국 10개대학에 주전산기 무상지원

체신부는 17일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금성, 대우, 삼성, 현대 등 주전산기 생산 4개사와 공동으로 전국 10개 대학에 23억원 상당의 국산 중형 및 개인용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컴퓨터를 무상지원 받을 대학은 인하대, 동국대, 성균관대, 청주대, 교원대, 원광대, 조선대, 동아대, 경남대, 영남대 등이다. 이들 대학들에게는

대학별로 중형컴퓨터인 타이컴 1대와 32비트 개인용컴퓨터 20대, 기타 주변기기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컴퓨터기기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산 중형컴퓨터 및 개인용컴퓨터를 지원받은 대학은 91년 4개, 92년 12개 대학등 총 26개대학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93년도 분은 94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각 대학에 설치해줄 예정이다.

## ■ 한국통신(KT)

### 세계기술정보서비스 '한국인터넷' 1분기 가동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해외 유명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와 기술정보등을 받아 볼 수 있는 한국인터넷(KORNET) 서비스가 올 14분기 중 상용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에서 선진 첨단과학 및 기술정보를 활용한 기초 및 기반기술 연구개발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제학술연구망 운용이 시급하다고 판단, 세계적인 학술정보컴퓨터망인 인터넷(INTERNET)의 국내 상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은 세계 5천여개의 개별연구망이 미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과학경제 등에 관한 각종 학술정보를 교환하는 컴퓨터통신망으로 현재 전세계 2백만대의 컴퓨터가 상호접속돼 통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요자는 연구목적이 전체의 48%로 가장 많고 상업용 2.9% 국방용 10% 정부기관용 7% 교육용 6% 순으로 연평균 8백%의 통신이용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현재 이용요금체계의 조정작업에 들어갔는데 사용량에 무관하게 저렴한 월 정액제 요금체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 ■ 데이콤(천리안)

## 통신사업 국산화 주력

데이콤이 해외 통신사업자들과 제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세계 각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구공산권에 동반 진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말 데이콤인터내셔널(주)을 설립, 국제통신 분야 진출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데이콤이 미국·러시아 등의 통신사업자들과 제휴를 적극 추진하는 등 통신사업의 국제화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지난해말 미국의 지역통신사업자인 벨애틀랜틱사와 앞으로 전기통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데이콤은 벨애틀랜틱사의 주요 사업영역인 VOD(Video-On-Demand),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통신 운용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콤은 또한 현재 러시아가 연해주(나훗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국내 교환기 업체인 금성정보통신과 동반 진출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데 금성정보통신 10%, 데이콤 40%, 러시아측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이콤의 러시아 직접 진출이 성사된다면 금성정보통신은 주로 교환기를 비롯한 통신 기기를 공급하고 데이콤측은 통신망의 운용 부문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데이콤은 현재 미국의 로랄사와 쉘컴사가 추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LEO) 사업인 "글로벌 스타"계획에도 현대 그룹과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중인데 지난해 하반기중에 관련 임원을 로랄사와 쉘컴사에 파견, 협력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DLS서비스 이용고객 비교적 높은 만족

데이콤의 디지털전용회선(DLS) 서비스가 이용

고객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콤이 고객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파악, 이의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데이콤의 전용 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DLS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DLS의 전체 위상은 고객 요구 수준이 87.0점인데 반해 현수준은 76.3점을 나타내 87.7%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업무별로 살펴보면 우선 DLS에 관한 상담·정보부문의 경우 고객 요구수준 84.8점에 현수준 77.6점을 기록, 91.6%의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개통부문은 90.3점의 요구 수준에 현수준 78.6점을 나타내어 87.0%의 만족도를, 그리고 장애 부문은 85.7점의 요구 수준에 현수준 74.2점을 나타내어 86.6%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 보상제도와 AS체계 개선안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해 주었는데 이번 조사결과 "장애 부문"중 장애 이상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기존시간 이내 복구 가능성)은 86.7점의 요구수준에 현수준 68.6점으로 79.1%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고객들은 데이콤의 AS체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제도의 시행 후 3시간 이상의 장애는 감소했으나 1~3시간 사이의 장애는 소폭 증가했고 특정 회선에 대한 중복장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장애처리 전담팀의 지속적인 유지와 활동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에서 고객들은 개선요구사항으로 장애처리중의 진행사항과 처리완료 후 장애원인 통보, 동일원인에 의한 장애의 근본적인 처리, 설치·변경시 진행사항의 통보 등을 꼽았다.

한편 데이콤은 DLS 이용고객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이의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두달에 한번씩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

갈 방침이다.

## 한국일보 독자투고

- 「천리안」으로도 받습니다 -

한국일보는 12일부터 「데이콤」의 PC정보통신 서비스인 「천리안」에 독자투고란을 개설하였다. 한국일보는 이미 지난 93년 12월 1일 국내신문 사상 처음으로 PC통신망에 독자투고란을 개설, 이를 독자광장 「소리」면 제작에 그대로 반영시킴으로써 PC통신 가입자 및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PC통신 「천리안」 가입자들의 투고는 소중한 독자의 소리가 되어 지면에 충실히 반영된다. 투고는 각종 시사문제에 관한 의견제언 등 일반적인 독자투고 형식은 물론 「한국일보를 읽고」 「독자에세이」 「나의 평」등 고정란 형식에 맞추면 된다.

「천리안」의 독자투고란 이용방법은 「천리안」 TOP메뉴 「16. 방송/컴퓨터문단/독자투고란」에서 「41. 독자투고란」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한국일보 전자뉴스서비스에도 하부메뉴로 독자투고란이 동시에 개설된다. 이 경우 TOP메뉴 「7. 뉴스/날씨/스포츠」에서 「한국일보 전자뉴스」를 선택한 후 독자투고란을 찾으면 된다.

## 지역정보통신망 설립 "활발"

- 김릉·마산 3~4월 개통 -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세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지역정보통신망의 설립이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컴퓨터지역정보통신망이 시작된 것은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천정보시스템(인디텔)이 개통된 지난해 7월이다.

인디텔은 인천지역주민의 커다란 호응을 얻어 개통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가입자가 1만1천명에 이르는 대형컴퓨터 정보통신망으로 성장했다. 올해에는 가입자수가 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디텔의 이같은 성공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정보통신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강릉지역과 마산지역에서는 이미 인디텔을 모델로 정보통신망을 준비해왔고 오는 3월1일과 4월1일 각각 개통, 지역정보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정보통신망의 선구자인 인디텔은 그동안 이들지역과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구축기술, 지역연구기관의 관심촉구 등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다른지역에 조언하고 있다.

산업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얻으려 해도 그 지역보다는 서울의 정보채널을 통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현실 때문이다. 이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의 지역정보통신망의 구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콤이 추진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의 정보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말 울릉지역정보통신망이 개통됐다. 데이콤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뒤쳐있는 울릉도를 1차 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컴퓨터통신 장비인 모뎀 80대를 무료지원하였다. 「신비의 섬 울릉소식」이라는 이름의 이 지역 정보통신망이 서비스됨에 따라 울릉주민들은 시내전화요금으로 각종 생활·공공정보 및 교육·의료·취업 등 전문정보와 다이얼로그 등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편지나 온라인을 통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됐고 육지소비자와 연결, 오징어, 호박, 옛, 산채나물, 향나무목공예품과 같은 울릉도 특산물에 대한 상호 직거래도 가능해졌다.

## 일본으로 직접 연결, 일본 선진 '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합니다!

과학 기술에 있어 선진화를 이룩하여 세계의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의 과학기술, 이제 천리안을 통해 일본의 과학기술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일본과

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초기화면에서 메뉴21번 「해외서비스 연결」의 2번 'JOIS'선택하면 되며, 서비스내용은 일본의 과학기술, 의학 등의 정보를 일본에 직접 연결하여 제공한다.

## 천리안 결혼정보 제공

데이콤은 예식장, 신혼여행지 안내 등 각종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12일 천리안에 개설했다. 조우니컴퓨터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처음화면에서 '여행/문화/가정/의학'란을 선택한 뒤 '결혼정보'를 다시 고르면 되며 이용료는 1분에 30원이다.

## 통신장비별로 운용돼 오던 망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망관리시스템』개발

— 금년 2월까지 전국적 시스템 구축으로 고장 즉시발견, 신고 즉시처리, 신청 즉시개통의 고객 지향적 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株)데이콤(대표이사 사장 : 申允植)은 최근 정보사회의 신경망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신망을 한눈에 파악하여 통신망 상황의 감시, 진단 및 제어기능의 시스템화로 일관성있는 통신망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종합 망관리시스템』개발에 성공했다.

데이콤이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한 『종합 망관리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통신장비와 서로 다른 망관리 체제로 제공되고 있는 국내 통신망 환경에 맞도록 시스템을 구현, 단말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의 통신망 상황을 24시간 감시/제어할 수 있다.

한편 데이콤은 이번에 개발한 『종합 망관리시스템』을 오는 2월까지 구축완료하고 우선 1단계로 自社가 제공하고 있는 공중정보통신망서비스(DNS), 전화회선서비스(DLS) 및 국제전화에 운용되고 있는 통신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데이콤은 이번 『종합 망관리시스템』 개

발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개발시스템을 자회사인 데이콤인터내셔널(株)을 통해 판매 및 기술 전수를 통한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I 532』 성능개선 성공 - 기존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I 성능 4배 향상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등 행정전산망에서 현재 호스트컴퓨터로 운용중인 『주전산기 I 532』 기종의 성능을 4배나 대폭 향상시킨 『주전산기 I 486』기종이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돼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기존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I 532』에 탑재된 NS32532 CPU칩 대신 인텔 i486칩을 탑재한 CPU보드를 교체하여 운영체제는 기존의 행정전산망 운영체제인 TX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능은 4배나 향상된 『주전산기 I 486』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데이콤이 『주전산기 I 486』기종을 개발하게 된 것은 그동안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I에 탑재된 NS32532 CPU칩(미, 내셔널 반도체사 생산)의 생산중단 발표후 현안으로 남아있던 하드웨어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전산화 이후 급격히 늘어난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2.5Gbps급 超高速 長距離 光通信網 구축에 1천5백억원 투입

- 서울-부산, 대전-광주 등 1단계 6백 34km 개통
- 전용회선 자체설비 확보, 음성 및 초고속 데이터전송, 화상통신 등 각종 첨단서비스 제공

20일 데이콤은 오는 '97년까지 모두 1천5백억원의 자금을 투입, 서울, 부산 등 전국 40여개 도시를 잇는 총연장 3천2백km에 달하는 장거리 광통신망을 구축, 음성 및 중·저속 데이터전송은 물론 초고속 데이터전송과 G4급 FAX, 화상통신, 종합유선방송(CATV)등 각종 다양한 신규서비

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거리 광통신망 구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97년 말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40여개 주요도시를 환형으로 연결하는 2.5Gbps급(초당 25억bit 전송속도) 超高速 長距離 光通信網을 단계적으로 구축기로 했다.

데이콤은 우선 이 장거리 광통신망을 기존의 中·低速 데이터 傳送외에도 금년 1월부터 제공을 시작한 음성 전용회선서비스와 2Mbps급 이상의 초고속 데이터전송, 방송중계 및 영상의 등 畫像通信, G4급 FAX, CATV 전송망, 분배망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향후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기간통신망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 64KBPS급 이상 고속으로 전환

국내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주로 해외지사나 본사와의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국제전용회선(IDLS)의 이용형태가 최근들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콤이 최근 조사, 분석한 “국제디지털 전용 회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90년에 사용중인 국제전용회선수는 총 1백2개 회선이었으나 '93년 12월 현재 98회선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회선수만을 갖고 비교한다면 국제전용회선 이용실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몇년간 국제전용회선 고객들이 그 동안 사용중이던 여러개의 저속 전용회선을 통합해 64Kb/s급 이상의 고속 전용회선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전용회선 이용실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 선택요금제 도입

지금까지 접속료와 전송료의 합산금액으로만 징수되어온 정보통신 요금체제를 대폭 개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선택요금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정보통신 요금체제는 접속시간과 전송량을 합산한 방식으로 징수하

교육과정 명	교육기간	교육비	교육내용
DIALOG 과정	2일과정 (10:00-17:00)	110,000원/인	DIALOG 서비스에 대한 개요 및 접속 절차, 색인방법, 각종 명령어 사용법을 다양한 검색 사례와 함께 소개
LEXIS/NEXIS 과정	1일과정 (10:00-17:00)	55,000원/인	LEXIS/NEXIS의 사용을 위한 전용통신 S/W 이용법, LIBRARY 구성 및 수록정보 등을 다양한 검색사례와 함께 소개
JOIS 과정	1일과정 (10:00-17:00)	55,000원/인	-JOIS의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개요 및 각종 명령어 소개 -일본어 통신S/W를 이용한 검색실습

'94 해외DB 교육일정

교육과정 월	DIALOG	LEXIS/NEXIS	JOIS
1월	12 - 13	14	
2월	16 - 17		18
3월	16 - 17	18	
4월	13 - 14		
5월	11 - 12	13	
6월	15 - 16		17

교육과정 월	DIALOG	LEXIS/NEXIS	JOIS
7월	13 - 14	15	
8월	17 - 18		19
9월	14 - 15	16	
10월	12 - 13		
11월	16 - 17	18	
12월	14 - 15		16

고 있는데 비해 선택요금제도는 이같은 징수방법 외에도 접속시간이나 전송량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요금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국제전화서비스 향상 "큰뚝"

데이콤이 국제전화서비스 개통 2주년을 맞았다. 당시 3개국에 불과하던 통화대상국을 12월 현재 전세계 1백10개국 1백18개 지역으로 확대했고, 국제가상사설망 서비스인 DACOM-GVPN, 50% 특별할인시간대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도입, 국제전화서비스의 품질제고에 힘써왔다. 데이콤의 급속한 통화대상국 확대 및 지속적인 신규서비스 보급, 확대에 힘입어 '93년 현재 발신폭수 기준으로 국내 전체 국제통화량의 약 2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데이터통신 서비스 선택요금제도 도입

한국통신(KT)은 새해들어 일반데이터 교환회선(HINET-P)을 통해 국제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때 이용자 스스로 요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요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최근 들어 데이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활동에 있어 통신이 차지하는 요금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정보통신이용 활성화는 물론 국제 정보통신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국제데이터통신서비스에 선택요금제도를 도입, 운영에 나섰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제데이터통신 서비스 이용시 전송시간과 전송량에 관계없이 부과한 단일요금제도를 개선, 기존의 요금제도에외에 전송량과 접속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요금방식이 추가돼 이용자는 유리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 R&D 3천2백억 책정

한국통신은 올해의 연구개발 목표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망 운용 기술의 확보 및 2000년대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첨단 서비스의 개발로 잡고 올해 총 3천2백3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정보통신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5일 한국통신은 올해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16.7% 증액해 연구개발단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연구소, 통신시스템개발센터 등 자체 연구에 전체의 55.3%인 1천7백89억원을 투입하고, 전자통신연구소(ETRI) 연구과제의 16.1%인 5백20억원을,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B-ISDN)연구에 2백49억원을 각각 출연하기로 했다.

### 전용회선 사업 강화

한국통신이 전용회선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6일 한국통신은 이달부터 전용회선사업의 경쟁에 대비, 데이터통신을 이용하는 전용회선 고객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사후관리를 위해 서울지역에 “전용회선 고객관리 AS전담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고객지원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한 고객관리 전담반은 1백20명의 엔지니어로 구성,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전용회선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통신은 서울지역에 이어 이달 15일까지 부산을 비롯해 대구·광주 등 대도시 지역에도 고객관리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전국 35개 도시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 초고속 전용회선망 기동

전용 회선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킨 초고속 전용회선망이 구축돼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2일 한국통신(KT)은 지난 91년부터 3년간 1천5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전국 33개 지역에 디지털 회선분배장치를 설치하고 분배장치간에는 5백65Mbps급의 광전송로를 연결한 초고속 전용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이 지난 91년부터 3년간 전국 33개 지역에 연차적으로 설치한 디지털 회선분배장치는 고속전용회선 운용상태의 감시기능을 비롯해 자동절제 기능·전자적 회선접속 및 고속회선분기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한국통신측은 이번 초고속 전용통신망의 구축으로 지금까지 수작업체 의존해온 공중망 다중접속 전용회선의 구성 및 절제 관리 등을 자동화해 고속·고품질의 회선을 적기에 개통할 수 있게 됐음은 물론 고속회선의 분기 및 시간제 서비스 등 다양한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정보통신의 활성화에 힘입어 각 기업체에서 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용회선의 수요가 매년 30%이상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폭발적인 전용회선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 전용회선망은 시설여유가 있는 기존공중통신망(PSTN)을 이용한 관계로 회선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전화국에서 이용자 태내까지 연결한 지절연 케이블을 이용한 관계로 데이터에러 및 손실 등의 품질불량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한국통신은 이번 초고속 전용통신망 구축과 함께 그간 수작업에 의존해온 전용회선의 유지보수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오는 95년까지 전국에 전용회선 집중운용보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 한국PC통신(HITEL)

“대한무역진흥공사” 1백대 수출상품정보 2월부터 하이텔등 통해 제공

한국의 주종 수출상품 1백가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새해부터는 전산망을 통해 일반에 제공된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별 수출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한해동안 수출상품 1백가지에 대한 정보화작업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이에 따라 1백대 상품에 관한 미국, 일본, EC(유럽

공동체)등 주요시장 및 한국의 생산, 수출입실적, 생산업체, 수출가격, 수입관리제도, 바이어명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빠르면 오는 2월부터 하이텔, 천리안 등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 업계 및 관련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 은행통한 자동이체 결제수단을 도입

한국PC통신(대표 김근수)은 이용자들의 정보이용료 납부 편의를 위해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 결제수단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PC통신은 신한은행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일부터 가입자들에게 자동이체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 시중은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국PC통신의 정보이용료 결제 수단은 기존의 신용카드제·현금납부제·체신지로제·은행지로제·정보이용권 등을 포함해 6개 방법으로 확대됐다.

## 동호회 전용사무실 마련

한국 PC통신(주)은 최근 각 동호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에 별도의 전용사무실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한국PC통신은 이 사무실을 신규동호회 운영진 교육, 회사와 동호회 운영진과의 의사소통, 동호회 운영진의 모임, 각종 동호회관련 세미나 및 회의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 PC통신은 이를 위해 이 사무실에 하이텔 접속용 고속전용회선을 개통하고 운영진들이 쉽게 동호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글 윈도즈등의 각종 S/W와 PC를 비치하고 있다.

부시썬(Sysop) 이상의 동호회 운영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사무실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개장되며 휴일의 경우 동호회 담당 운영자와 협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 9600bps 고속서비스 제공

하이텔 서비스의 고속화가 시작된다.

당사는 '94년 1월1일을 기해 한국통신(KT)의 700-7000번망을 이용하여 전국에 고속 모뎀 서비스(9600bps)를 개시합니다. 더불어 해외여행자도 컴퓨터단말기를 전화기에 연결해 간편하게 하이텔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9600bps 서비스는 기존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던 2400bps(초당 240바이트의 데이터 전송)의 4배의 속도로서 자료나 파일의 전송에 상당한 시간이 절약될 뿐더러 빠른 정보이용으로 학습정보나 그림정보 등의 화면출력 시간을 크게 줄여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 줄 것이다.

일례로 PC통신 이용자가 하루 평균 2MB(메가바이트)의 정보를 통신처리할 경우 2400bps급 모뎀을 사용하면 3시간(60통화)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해 9600bps급 모뎀을 사용하면 44분30초(15통화)가 걸려 통신요금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고속모뎀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통신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전용망 접속번호인 '01410'대신 '700-7000'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전 HYTEL 고속서비스(9600bps)를 위하여 시험운영중이던 접속번호 '02-747-6554'는 한국통신서비스에 통합되며 고속모뎀(9600bps)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9600bps(V32)를 지원하는 고속모뎀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의 2400bps모뎀은 접속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 ■ 포스데이타(POS-Serve)

### 국방전산통신망사업 협력업체로 최종선정됨

군인공제회 산하 제1정보통신(사장 강자화)은 13일 국방전산통신망 구축사업(총 사업비 88억원)의 협력사업자로 포항제철 자회사인 포스데이타(주)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제1정보통신은 지나해 말부터 금성정보통신(주), 대우통신(주), 포스데이타(주)등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계와 가격, 유지보수 문제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포스데이타가 최적적 업체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군



인공제회 제1정보통신은 이달중 국방군수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포스데이타와 공동으로 사업에 착수, 오는 96년까지 국방전산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전산통신망이란 전산통신 장비와 고속의 데이터통신 회선을 이용, 전군의 주요 사령부가 위치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등 10개 지역의 전산기 보유부대를 교환기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제1정보통신은 계약협상(시담) 우선 순위에서는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으나 탈락한 금성정보통신과 대우통신이 심사경위에 대한 이의 및 재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방부에 냈에 따라 13일 오후 공개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강사장은 이번 결정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군 인공제회가 책임지고 결정한 만큼 협력업체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공개설명회도 불복업체에게 결정이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투명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94년 'SM 기반구축의 해'로 확정

포스데이타(대표 성기중)는 94년을 시스템 관라(SM)체제 기반구축의 해로 정하고 10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포스데이타는 기존의 SI본부와 포철사업본부를 SI 1, 2, 3본부로 확대개편하고 QA사업본부를 PI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 그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포스데이타는 기존의 5본부 26부 1실 1연구소 체제에서 5본부 15부 14실 1연구소 체제로 바뀌게 됐다. 포스데이타 관계자는 SM추진 전담사업본부를 신설하고 SM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술지원실을 설치하는 등 SM분야를 대폭 강화시킨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 금성정보통신 <GINS>

### 수협에 정보통신망 구축

금성 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수협의 잠실 신

축사옥에 3억5천만원 규모의 LAN을 비롯해 CATV시스템 등 총 30억원 규모의 종합 정보망을 수주해 구축을 끝냈다고 밝혔다.

시험운용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수협의 LAN은 1백명 가량의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 서버 방식의 PC-LAN으로 금성 정보통신은 LAN 구축을 위해 랜카드와 허브, 전자우편 소프트웨어(모델명 GS-MHS) 및 이번에 개발한 전자계시판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상으로 검색이 가능한 인사정보시스템도 함께 탑재 했으며 이밖에 금성정보통신은 PBX와 CATV시스템·광파일시스템·ARS 등도 함께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측은 이번 네트워크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1백50여개의 지점과 출장소에도 단계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 스타렉스통신기기 전제품 프서 ISO인증획득

금성 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수출형 독자개발 모델인 "스타렉스" 교환기를 비롯한 통신기기 전제품에 대해 프랑스 품질보증 인증기관인 BVQI(Bureau Veritas Quality International)로부터 국제품질 표준규격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금성정보통신은 이번 ISO 9001 인증획득과 함께 통신업계 처음으로 RVC(네덜란드 국가 인정기관), SQS(스위스 국가 인정기관), RAB(미국 국가인정기관), CNAC(벨기에 국가인정기관), NACCB(영국 국가인정기관)등 5개국에 동시에 인증 등록했다.

금성정보통신이 이번에 BVQI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통신기기 제품은 스타렉스시리즈·TDX 등의 국사설 교환기, 광전송장치·T1급 다중화장치 등의 전송장비, 무선호출 수신기·휴대형 전화기 등 단말기 제품이다.

금성은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구미 공장과 안양연구소를 중심으로 규정 및 표준을 개발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꾀했다.

금성은 이번의 인증획득을 계기로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사내 품질 경영 관리 체계를 더욱 다지고 협력업체 및 해외 현지법인 공장에도 품질 시스템을 도입,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일반

### 산업기술정보원, 기술이전 정보센터 설립키로

국내외 기업의 기술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술이전 정보센터가 설립된다.

산업기술정보원(원장 박홍식)은 국내 기업 및 해외기업의 기술정보를 수집, 유통 및 기술중계 알선 상담기능을 수행할 기술이전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기술중계 알선 상담기능을 수행할 기술이전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술이전 정보센터는 국내 기업간의 기술시장 개척은 물론 미국, 일본 등과의 국제기술시장도 개척, 기업들이 필요기술을 국내외에서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계자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기술정보원은 기술이전 정보센터 설치와 함께 온라인 기술자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기술정보원은 기술이전 정보센터 설치와 함께 온라인 기술정보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 기술정보를 완전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일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 과학기술문헌정보 국내산업무역 한국공고특허 등 10종 22만건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같은 DB구축계획이 완료되면 기정원은 자체 제작 17종 1백60만건에 해외 9종 2천만건의 산업 기술관련 정보를 보유, 국내 최대의 정보자료보유기관이 된다. 기정원은 또 온라인 정보은행인 KINNTI-IR를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망을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국가전산망(교육 연구 및 행정전산망) 및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부가가치통신망과의 연계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 과기처, 국내 정보산업 분류·지표조사 착수

국내 정보산업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민간 기업들의 정확한 시장예측은 물론 체계적인 정보산업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산업 분류 및 지표조사가 국내 처음 실시된다.

과기처는 8일 국내 정보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정보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체계화 돼 있지 않아 정보산업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 중에 정보산업 분류방안을 마련해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정보산업 관련 통계는 체신부·과기처·상공부 등 관련부처의 민간 산하단체 및 통계청에서 지표조사를 실시, 발표하고 있으나 정보산업의 분류가 서로 맞지 않은 데다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 정보산업동향을 분석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으며 정보산업 향후 전망이 사실상 불가능해 체계적인분류와 함께 정확한 지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기처는 우선 오는 3월 말까지 정보산업연합회·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민간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 \*정보산업 분류 및 통계 조사 현황 파악 \*정보산업 분야 구분 및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 산업 해당업종 규정 \*지표조사 항목 등을 정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정보산업 분류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 분류안을 토대로 정보사업 관련 통계에 대한 추정치와 함께 정확한 통계를 연도별로 발표, 민간기업들의 시장조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처는 지난 92년 정보산업발전계획에서 기획원·상공부·체신부·과기처등 관계부처가 합의한 대로 정보산업을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관련제조업 등 4개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에 의해 부문별 해당업종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SI사업 등 표준산업분류상 반영이 안된 신규업종에 대해서는 개정시 반영해 정보산

업분류체계를 일원화 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보산업 지표조사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체에 대한 기본통계자료로 통계청 지표조사를 최대한 활용, 해당 정보산업 업종별로 추출해 지표를 작성하고 통계청 자료 및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를 활용한 시장예측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분류체계 및 지표조사 정립방안이 관계기관 공동으로 마련, 확정되는 대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유관단체·민간 기업 등도 통일된 정보산업 분류를 사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조사된 지표는 민간업계의 시장 수요예측이나 정보산업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 SW불법복제 집중단속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최근 열린 94년 제1회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수사지도 협의회에서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를 특별 합동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올해에는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위반사범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하고, 이미 이같은 기본방침을 전국 지검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단속대상 또한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사범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지도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계부처 및 기관간의 상호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정부가 3월말까지 주요 교역 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를 의회에 보고하

고 이를 토대로 4월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국을 지정할 계획임에 따라 3월중 한·미 경제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제공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릴 계획이다.

### "정보통신기기, 외제 선호도 높다"—SDS, 이용 실태 조사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외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삼성데이터시스템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기, 핸드폰, 무선호출기, TV, 컴퓨터, 모뎀, 팩시밀리등 7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품의 비율과 새로 구매할 경우 외제품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7개품목 가운데 5개품목에서 외제품의 비율이 높았다. 전화기는 현재의 5.9%에서 8.4%로, 핸드폰은 25.9%에서 27.8%로, TV는 4.6%에서 7.6%로, 모뎀은 11.4%에서 14.8%로, 팩시밀리는 3.5%에서 5.6%로 외제 선호도가 높아졌다. 반면 컴퓨터는 22.7%에서 20.9%로, 무선호출기는 33.3%에서 20.5%로 외제품 선호도가 낮아졌다.

한편 국산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평균 만족률은 58.9%로 몇년전 일본업체가 일본내에서 조사해 밝힌 80%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률을 조사항목별로 보면 품질에 대한 만족률은 61.8%로 그중 가장 높았으며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률이 48.1%로 가장 낮았고 품목별로는 TV가 58.6%로 가장 높았으며 전화기가 55.7%로 가장 낮았다.

품목별 정보통신기기 구입예정 조사에서는 전화기와 TV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전체의 26.1%와 26.7%로 가장 높았다. 특히 1백만원대가 넘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22.9%에 달해 무선호출기의 1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산원, 국가기간전산망 표준화 추진

한국전산원은 국가기간전산망에 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산원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의하면 행정전산망 등 국가 기간전산망의 이용활성에 대비, 분야별 표준화를 중점 연구하여 이를 국가표준 등으로 제정해 나갈 방침이다.

전산원이 올해 추진하게 될 표준화는 플랫폼 관련 표준화를 비롯해 데이터베이스, 응용지원, 전산통신, 관리기술, 데이터코드 및 미디어, 표준화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이들 분야중 일부는 총무처 체신부 경찰청 등에서 표준화를 요청해 온 것이다.

전산원은 또 국가기간전산망에 대한 감리제도의 도입을 위해 전산감리전문가 자격제도 시행방안, 전산감리지침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한편 정부기관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이동통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뱅크 운영

한국 이동통신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무려 63.7%나 급증한 4천2백2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 이동통신의 지난해 경영성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4천2백29억원의 매출액과 7백19억원의 순이익들이 17%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국 이동통신의 매출급증 현상은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가입자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지난해말 현재 전년에 비해 73.5%나 급증한 47만2천 가입자에, 무선호출 가입자도 56.5% 급증한 2백27만2천 가입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지난해 이동전화 분야에선 27만1천 회선을, 무선호출 분야에선 1백98만1천 회선의 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한국 이동통신에서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소통률은 지난해에 91%, 무선호출의 수신율은 96%로 각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이동통신은 민영화에 대비하고 이동

통신사업의 경쟁 및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객만족경영제도(CSM)를 도입하는 등 고객만족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특허청, 특허정보 멀티미디어로 안내

- 출원 요령·심판 절차 등 음성·문자로 알려 -

「멀티미디어 특허안내 시대」가 열렸다. 첨단 멀티미디어기기를 이용해 특허출원·등록요령, 심판절차, 산업재산권 통계 등 특허정보관련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

특허청은 11일 이같은 「멀티미디어 민원안내 시스템」을 특허청내 17층 민원안내실 입구에 설치, 개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4천9백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민컴전산(주)에 의뢰 제작한 이 시스템은 터치스크린 방식을 이용, 키보드조작이 필요없어 익숙하지 못한 민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민원안내 시스템은 민원이 원하는 정보를 음성·문자·데이터·그래픽·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형태로 20인치 컬러TV화면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며, 보이스 네비게이션(Voice Navigation) 시스템을 이용, 특허출원서 등 문서작성 방법을 음성과 문자의 형태로 동시에 알려 주도록 했다.

또 원하는 정보에 대해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채택했다.

## PC통신망 '청와대 큰마당' 인기...현대판 신문고 역할

김영삼 대통령이 민심의 흐름을 컴퓨터를 통해 파악한다. 최근 하이텔, 천리안 등에 설치된 컴퓨터통신망 가운데 청와대와 직접 연결된 「청와대 한마당」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현대판 신문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청와대측은 대통령께 직소할 수 있는 「신중 민원실」에 이같이 높은 호응이 일자 그동안 접수됐던 내용들을 모아 이달 중순쯤 책자로 모아 시판할 예정이다. 「청와대

큰마당”은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키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한국통신의 하이텔과 데이콤의 천리안에 각각 지난 6월과 1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통신망이다.

이 컴퓨터통신망은 김영삼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도 연결돼 김대통령이 자판만 누르면 그 내용을 즉시 볼 수 있는 등 “전자비서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증시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컴퓨터통신망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한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청와대 큰 마당”은 “대통령에 바란다”, “공청회”, “국정자료실”, “여론조사실”, “국정 모니터실”등 5개 부분으로 나뉜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자유롭게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통령에 바란다”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는 다른 통신망과는 달리, 이용자의 신분과 내용을 비밀로 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만 보낼 수만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열람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 정보 심의판정 5천여 달해

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전문심의기관인 정보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총 5천건이상의 정보내용을 심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보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한국통신으로부터 700번 정보내용 심의권을 이양받은 후 지난 12월 말까지 총 39회의 심의활동을 벌여 5천4백9건의 정보 내용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4천3백76건은 적합, 8백6건은 보완, 2백27건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한국 통신의 하이텔 서비스에 추가로 가입한 대우증권 등의 DB내용 등을 심의하는 등 비음성 분야와 관련, 6건의 심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하이텔 서비스에 가입하는 VAN사업자들의 정보내용도 계속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심의내용을 보면 적합 판정 가운데 2천5백84건이 공익성 정보이며 1천7백92건이 기타 정보로 분류됐는데 이는 최근 700번서비스 등의 정보 내

용이 대거 공익성 정보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보 윤리위원회는 특히 정보내용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 교육청 김경애 장학사를 정보윤리위원회 새위원으로 위촉하고 월1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월2회로 늘려 지금까지 20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보윤리위원회는 또 비음성분야의 정보내용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PC통신의 “하이텔”과 데이콤의 “천리안”에 별도의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스데이터 등 다른 VAN 사업자들의 통신망내에도 이같은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 국세청, 국제통합전산망 시스템 개발

국세청은 오는 96년 실시에정인 금융자산종합과세에 대비, 개인별 기업별과세자료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국제통합전산망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2백5억원을 들여 럭키금성 그룹의 STM사를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에 최근 기술개발 용역을 의뢰했다.

6일 국세청관계자는 현재 설원현황을 내년까지 통합시스템으로 바꿔 종합관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통합시스템이 갖춰지면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납세자의 모든 세원을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파악, 종합과세가 가능해진다.

## ‘PC OA기기’ DB제작

한국기업정보리서치(대표 김연수)는 국내 1백여개사에서 생산판매하는 가전제품 컴퓨터 사무자동화기기를 망라해 ‘가전제품 및 PC OA기기가이드’데이터베이스를 제작, 컴퓨터통신망 ‘천리안’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1만여종에 달하는 제품정보를 모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 문의 시점이 상품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의견을 메이커에 알려줄 수 있으며 <> 기업이 컴퓨터통신

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설명과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농지종합정보시스템 위장매입 금년부터 시험가동

농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산망 구축사업의 1단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외지인에 의한 농지매입, 불법·탈법적인 농지전용 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농지투기의 원천봉쇄가 가능케 된다.

3월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종합전산망 구축 사업은 1단계 작업인 데이터베이스(DB)입력이 작년말로 끝나 금년 한해 동안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가동하게 된다.

이번에 입력완료된 DB에는 면단위에 비치된 농지원부를 바탕으로 농가구성원 및 농지소유 실태는 물론 농지의 소유자 변동, 임대차 여부, 농지의 가격, 농지의 종류 및 경지정리 여부 등 농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수록돼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이 전산시스템이 앞으로 전국의 농지이용 및 관리 현황, 농지소유 및 임대차, 부채지주 농지현황 등을 파악하고 농가·농지 이동에 따른 대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 부작용정보 WHO 전산망 연결

\*\*\*보사부, 안전성 관리 선진국 수준 개선\*\*\*

의약품 부작용정보 수집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보사부는 27일부터 세계 각국으로부터 최신의 의약품 부작용정보를 수집하는 WHO(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으로 연결, 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 정보를 곧바로 입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제정보입수의 지연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어온 사례를 줄이게 됐으며 우리나라도 의약품이 안전성 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WHO의 부작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서 연평균 5만건의 신규정보를 취득, 국내에 시판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에 곧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WHO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 일본, EC국을 비롯한 41국에서 수집한 부작용정보가 수록되며 한국등 온라인으로 연결된 18개국국가에 곧바로 수집 내용 및 그 분석결과가 통보된다.

보사부는 약정국 약품안전과에 온라인 연결망을 갖추에 따라 신규수령정보는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총 119만건의 의약품 안전성 관련정보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다.

WHO 데이터베이스는 각국에서 보고된 부작용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생률 및 발생내용의 경중, 각종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보사부가 실시하는 의약품의 안전성관리업무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지금까지는 WHO 및 일본 후생성 등으로부터 뒤늦게 수집한 문헌정보에 의존해서 의약품의 새로운 부작용을 확인한 뒤 이를 약품사용 설명서에 반영하고 의사 및 약사들에게 숙지시켜왔다.

## "민원정보서비스 파급효과 크다"

앞으로 개발될 전산망 서비스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은 주민 정보 시스템, 주동산 정보 시스템 등 민원관련 서비스이며 이들 서비스를 제공 했을때 개대되는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1천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한국 전산원은 고려대 행정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차세대 전산망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행정이 되개위해서는 국민 위주의 행정, 자기쇄신의 행정, 사회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전산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관련·시민·학생·전문가 2백 89명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하게 될 58개 차세대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효과성·필요성·적정연도·예상연도·예상확률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

민정보와 부동산정보 시스템등 민원정보 서비스가 적정 제공시기가 빠르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정보·보건복지정보·1차산업정보 시스템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정책정보와 교육정보 시스템의 효과가 가장 낮고 제공시기도 늦을 것으로 분석됐다. 효과성을 서비스별로 볼 때는 주민등록 서비스(전출입신고 단일화)가 가장 효과성이 높았고 교통신호관리 서비스, 긴급환자를 위한 병원관리 서비스, 부동산정보 서비스, 행정부처간 전자문서교환 서비스 등의 순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적정 시기별로는 부동산정보 서비스가 오는 97년으로 가장 빠른 것을 비롯해 주민등록서비스, 행정부처간 전자문서교환 서비스, 도로정보 서비스, 부처간 결재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와 주민등록정보 서비스의 적정 제공시기가 각각 97년 중반이고 부처간 EDI서비스, 도로정보 서비스, 부처간 결재서비스, 전자자료의 법적효력 보장 서비스의 적정 제공시기는 각각 98년이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민원관련 시스템인 주민정보 시스템과 부동산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차세대 행정망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양시스템의 구축으로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교통비용 등 민간부문의 비용절감 효과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7백56억5천만원, 부동산정보 시스템이 6백47억3천만원 등 연간 총 1천4백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행정전산망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 행정정보DB 구축 및 전국적인 행정전산망 체계 구축 \*전산망 종합관리를 위한 범부처적인 기구의 신설 \*장기적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기초자료의 철저한 수립과 DB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충남 "정보시스템" 구축

정부의 행정전산화 사업과 관련, 각종 행정자

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이 충남도청에 구축된다.

18일 충청남도는 정보시대를 맞아 각종 정보와 자치단체별 및 실·과별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정보공개등 대민 행정서비스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도종합정보시스템을 오는 95년말까지 구축, 96년 1월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올초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본청 전산실에 주전산기인 타이컴을 임대로 설치하는 한편 도지사실을 비롯, 간부실과 각 실·과사무실을 연결하는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하고 도청의 주요현황 및 주요행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방침이다.

도청 전산실의 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구축돼 본격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행정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행정서비스체제가 대민 위주로 개선되는 등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정보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한·일 교류 본격 추진

정보산업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한·일 교육기관간 대규모의 인력교류가 본격 추진된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구일회)은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의 정보 처리전문가들을 선발해 일본 최대의 전문교육기관인 일본 전자전문대학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올 4월 20명의 연수단을 일본에 파견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규모 인력교류인 이번 사업은 한·일 산업기술 협력재단의 자금지원으로 이뤄지게 되며 1차 연수단은 데이터베이스분야에 대한 일본의 첨단기술을 습득케된다.

KITRI는 올해 2차로 멀티미디어분야에서 20명의 전문인력을 모집, 일본에 파견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연수분야를 확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산업과 관련된 일본의 첨단기술을 습득토록할 계획이다. KITRI와의 업무협력으

로 전문인력의 교육을 실시하게 될 일본 전자 전문대학은 지난 50년 설립됐으며 최첨단기술장비 및 교육장비를 확보하고 전적으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고급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전문기술교육기관이다.

일본 전자전문대학은 이번 사업을 위해 자체 커리큘럼과는 별도로 한국연수단만으로 구성된 독자반을 편성,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KITRI는 1차연수를 위해 2월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정보 처리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분야의 전문가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 다우기술 교육용 CD-ROM개발

(주)다우 기술(대표 김익래)이 멀티미디어 방식의 교육용 CD-ROM 타이틀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어린이의 지능발달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 “퍼니하우스”와 자주 사용하는 그림과 도안을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클립웨어”, 영어회화교육 타이틀 “퀵잉글리시”등 모두 3종이다.

퍼니하우스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어린이 학습용 프로그램으로 많은 애니메이션과 효과음을 수시로 작동시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이 타이틀은 마우스로 화면의 특정 그림이나 부분을 선택하면 해당 영어단어를 출력시키면서 외국인의 음성을 동시에 들려주도록 설계해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어학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

“클립웨어”는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그림이나 도안 등 전문가들이 제작한 약 1천여종의 그림을 포함하고 있어 그래픽 관련직종의 전문가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보조도구이다.

“퀵잉글리시”는 학습내용이 모두 실감나는 동화상으로 구성돼 교육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매킨토시와 IBM 기종에서 모두 동작한다. 또 소프트웨어 구성이 쌍방향 통신 방식으로 설계돼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학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뉴미디어정보서비스 전문업체인 (주)픽셀시스템(대표 : 전하진)이 대우통신(주)를 통하여 한국 마사회의 경마정보안내시스템인 “굽소리”를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과천 경마장 및 17개 장외발매소에 총 50대가 공급된 이번 “굽소리”경마정보 안내시스템은 한국마사회에서 새로 도입한 TICOM(대우통신 DTC9000)을 호스트로 사용하며, 경마세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20인치의 대형 칼러 모니터 상에 다채로운 그래픽 화면과 함께 제공한다. 특히, 공중용으로 설치되는 정보안내 단말기인 점을 고려하여,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압전식으로 작동되는 16Key의 간단한 키패드가 부착되어 있다.

당일경주계획, 출마표, 마필, 기수 및 조교사의 성적, 경주결과 및 배당금등 경마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호스트 컴퓨터와 LAN 및 9600bps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이 시스템의 설치를 통하여, 경마팬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경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향후, 공중망과의 연결을 통해, 각 가정으로까지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경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 및 경마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주)픽셀시스템, “굽소리” 설치완료